

# 「새마을運動」을 主題로 한 教授세미나 經過報告書

姜 信 澤  
(副 教 授)

## 目 次

- 一. 教授세미나의 目的
- 二. 主題：새마을運動
- 三. 經 過
- 四. 結 果

### 一. 教授세미나의 目的

#### 가. 背景과 目的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은 1959 年에 開校한 以來 韓國의 行政學 發展에 상당한 貢獻을 해 왔다고 自負하며 教授 各個人의 學問的 成長은 勿論 行政學教育에 있어서도 항상 그 水準을 높이고자 꾸준한 努力을 해 왔다.

그 뿐만 아니라 새로운 教育活動과 事業分野에 있어서도 先驅的인 試圖를 해 왔는데 그 最近의 例로서는 「發展政策研究課程」이라 부르는 高級公務員을 위한 短期 教育課程의 新設이다.

이와 같은 계속적인 刷新的効力의 一環으로 우리가 1973 年부터 試圖하여 본 것이 非公式的 분위기 속에서 週期的으로 行하고 있는 教授세미나이다. 오늘날 各學問分野는 理論的으로 나 現實的인 實際問題의 解決에 있어서 相互 協同하여야 된다는 것이 強調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여러가지 與件으로 因하여 同一學問, 같은 學校內에 있어서의 共同研究조차 如意치 않은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教授들은, 共同 關心事가 되는 어떤 理論的 實際的인 主題를 中心으로 相互間의 研究經驗을 交換하고 그러므로써 學校自體의 研究雰圍氣를 더욱 強化하고 教授 各個人의 더욱 큰 發展向上에 寄與해 보기로 合意하였다.

이러한 趣旨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教授세미나」이다.

#### 나. 教授세미나活動의 內容

教授세미나는 주로 두가지 活動을 운영해 나간다.

첫째는 個人的 研究結果의 發表이다. 個別的으로 自己 專攻分野에서 研究하고 있는 것을 그 研究進行中에 있어서나 또는 完成된 後에 教授세미나에서 發表하여 다른 教授들의 評을 듣는 것이다. 때로는 教授들의 要請에 依하여 어느 特定 教授가 發表를 하기도 한다. 그러므로써 行政學과 그 隣接分野의 概念, 理論 및 資料에 關하여 意見을 交換하게 된다.

둘째는 共同 研究事業의 運營이다. 이것도 두갈래로 進行되는데 하나는 學校가 外部로부터 委囑받은 研究事業에 關하여 그 研究를 直接 責任진 몇사람의 教授가 그 研究에 直接 參與하고 있지 않은 餘他的 教授들과 함께 研究計劃書, 中間報告書 및 最終報告書의 內容을 檢討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教授들이 共同으로 選定한 어떤 主題를 놓고 一聯의 非公式의 人 對話를 進行시켜 나가는 것인데 本報告書의 內容은 1973年度에 있었던 이와 같은 對話에 關한 經過報告書이다.

## 二. 主題 : 새마을 運動

教授세미나 活動中 共同 研究事業에 屬하는 一聯의 對話中心의 意見交換은 通常的인 意味에 있어서의 調整 研究事業은 아니다. 이것은 어떤 主題를 對象으로 한 對話의 계속을 通하여 研究의 劣廻點을 造成 強化하고 어떤 制約된 研究에서는 어려운 새롭고 試案的인 研究方法 또는 接近方法을 試圖해 보는 機會인 것이다.

勿論, 이와 같은 세미나를 進行시켜 나가는 동안에 參加者들은 理論的 또는 經驗的인 研究에 從事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種類의 세미나가 어떤 貢獻을 하게 될 것인가에 關하여는 두말할 나위가 없겠으나, 教授個人의 研究業績에 寄與함은 勿論, 講義에 必要한 資料의 蓄積에도 寄與하게 될 것이다.

어느 意味에서 본다면 어떤 題目을 놓고 세미나를 하였느냐 하는 것은 그리 重要한 것이 못된다. 더 重要한 것은 共同的 意見交換이 可能한 對話의 機會를 마련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첫해인 1973年度에는 「새마을運動」을 主題로 하여 3월부터 11월까지 10餘回の 研究모임을 가졌으며 그 結果의 一部分은 本論叢에 7篇의 論文으로 掲載하였다.<sup>(1)</sup>

새마을 運動을 主題로 擇한 理由는 다음과 같다.

(1) 새마을 運動을 主題로 한 本大學院의 教授세미나를 위하여 너그러운 財政支援을 하여준 駐韓 亞細亞財團에 對하여 이 機會를 빌어 感謝를 드린다.

첫째 政府에서 그렇게도 力點을 두고 있는 事業에 관하여 行政學徒로서 無關心할 수는 없다.

둘째 새마을運動이라는 包括的인 事業은 政治, 經濟, 社會的인 諸般 問題가 關聯되기 때문에 어느 教授든지 自己의 專攻關心事에서 벗어나지 없이도 研究에 參與하여 平素에 가지고 있던 概念이나 分析方式을 適用해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었다.

셋째 大概 政府事業의 많은 分野에 관해서는 資料가 不足하거나 入手하는데 時間과 經費가 많이 所要되어 制限된 研究財源을 가지고 研究를 進行시켜 나가기가 어려운데, 새마을運動에 관해서는 적어도 基礎資料의 入手가 容易하고 그동안 數많은 글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하는 것이다.

### 三. 經 過

#### 가. 參與와 範圍

이 研究에는 原則的으로 教授全員이 參與하기로 하고 第1段階에서는 基本概念, 分析構造, 研究範圍等を 任意로 提案 討論하고 各自 研究에 興味가 있다고 생각되는 項目을 決定하고 이러한 討論을 土臺로 한 글을 쓸 수도 있게 하였다. 다시 말하면 소위 conceptual framework의 提示自體단으로서도 足하다고 보았다. 第2段階에서는 第1段階에서 合意된 內容 또는 範圍內에서 特定項目別로 分擔研究를 進行 發表하고 可能하면 論文으로 完成하기로 하였다.

#### 나. 經 過

새마을運動의 內容이 極히 包括的이라는 理由 때문에 그것을 세미나의 主題로 擇하게 된 것인데 바로 그와 같은 理由로 討論은 廣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反面에 어떤 合意點을 求하기도 어려운 것이 많았다.

새마을運動의 概念自體에 관해서도, 精神的側面, 政治的社會化的 側面, 社會階層間的 統合 地域開發의 側面, 社會開發運動의 戰略이라는 여러가지 側面에 관하여 論議되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새마을 運動을 그 發生史的인 立場에서 어느 때부터 時期를 區分하여 從前의 地域社會開發運動과 區別할 수 있으며, 있다면 그 特徵은 무엇인가도 考察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決定作成者의 意圖 乃至 目的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여러가지로 推定하면서 새마을運動과 事業이 갖어올 效果나 機能을 檢討하여 보았다. 결국 새마을運動과 새마을 事業을 어떠한 概念構造나 分析方式을 通하여 考察하던 間에 根本的으로는 韓國 農村社會의 環境의 構造的인 與件이 있었고, 이에 對한 政府의 對應과 政策이 있었으며 그에 따라 變化가 惹起되었으리라는 前提 밑에서 具體的으로는 새마을運動의 狀況, 概念, 目的, 動機, 決定 및 推進, 事業分析, 效果等に 관하여 政治的 經濟的 社會文化的인 諸側面에서 考察하여 보았다.

#### 四. 結 果

위에서言及한 바와 같이 廣範하고 多樣한 問題를 提起하고 論議하는 過程에서 얻은 思想을 分擔 整理하여 個別的인 論文을 作成하였다. 本論叢에 收錄된 새마을運動에 관한 論文中에는 現地の 公務員과 住民에 對한 面接資料를 土臺로 作成한 것도 있다.

收錄된 論文의 內容을 여기에 다시 要約할 必要는 없겠으나 다만 論文收錄順에 依하여 간단히 言及하겠다.

朴東緒院長 및 金雲泰教授는 새마을運動의 目的과 理論體系를 整理하였는데 이것은 政策決定者의 意圖 推定뿐만 아니라 새마을 運動의 社會機能인 效果까지도 推定 檢討한 것이다

俞 焄教授의 새마을事業豫算의 分析은 政府文獻에서는 不充分한 豫算資料까지를 調査補充하여 事業別 所管別로 상세히 檢討함으로써 豫算面에서의 事業間의 比重을 分析하였다. 이와 같은 豫算分析은 새마을事業의 構造와 性格을 밝히는 것이기도 하다.

安海均教授는 새마을事業에 대한 農民의 反應을 現地 面接에 依하여 調査하였다. 政府의 事業이 그 對象者나 受容者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 하는 것은 事業의 成敗를 左右하는 關鍵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事業의 效果는 住民들이 그들에게 要求되고 있는 行態의 目的이 무엇인가를 理解 受容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크게 달려 있기 때문이다.

金光雄教授는 새마을事業의 生産性에 미치는 諸要因을 抽出하고 이에 관한 面接資料를 土臺로 生産性에 가장 크게 影響을 미치는 要因을 分析하고 있다.

金海東教授는 서울 特別市를 中心으로 「都市 새마을 運動」을 考察하였는데, 都市에서는 農村과 달라서 物理的인 變化보다도 價値觀 및 生活態度의 變化가 그 內容으로서 重要한 것이 라는 점을 強調하고 있다.

筆者는 새마을 運動과 새마을 事業의 概念定義, 새마을 事業을 通하여 建設하려는 새마을 像 및 그 推進體制를 中心으로 새마을事業의 計劃과 執行을 分析하였는데 主로 어떠한 分析構造속에서 새마을事業이 理解될 수 있는가에 主眼點을 두고 있다.

이제 教授세미나라는 하나의 試圖를 끝내면서 도리켜 보면, 行政大學院의 全教授陣이 어떤 主題를 놓고 持續的으로 모임을 갖을 수 있었다는 것에도 큰 意義가 있었거니와 그 結果 여러篇의 論議가 執筆되었다는 것도 보람찬 일이다.

이와 같은 試圖의 經驗을 살려 앞으로도 教授세미나를 계속 推進하려는 것이 本大學院의 方針이다.